

이번에는 9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문장 성분을 풀었고 이제는 문장의 짜임새 부분인데  
사실 문장의 짜임새가 총집합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모두 다 동원해서 풀어야 되는 거고  
일단 구조적인 측면은 알고 가야 되죠.

1번 문제에 설명 나와 있는 거지만

우리가 짜임새 부분 이야기했을 때 홀문장이라는 게 있고.

홀문장은 주어랑 서술어 하나씩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겹문장이라는 거 있죠?

하나의 절만이 딱 구성되어있다.

주어 1개, 서술어 1개.

그러면 홀문장이 되겠죠?

이제 겹문장이라고 하는 걸 나눠보게 되면

안은 문장과 이어진 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안은 문장 보게 되면, 명사절을 안은 문장,

관형절 안은 문장,

부사절 안은 문장,

서술절 안은 문장,

인용절 안은 문장이 있죠.

그러니까 문법적인 재료들이 있어서 사실은 되게 편해요.

뭐냐하면, 명사절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 3개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결국 전성어미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절이 바깥에 있는 절에 절 하나가 안겨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서술어였던 놈이 명사처럼 바뀌고

관형사처럼 바뀌고 부사처럼 바뀌기 위해서는

전성어미의 도움이 필요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명사절을 빨리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기, -(음),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 되는 거였고

관형절 같은 경우에는 -(은), -는, -을, 던 찾으면 되는 거였고

부사절은 좀 더 나중에 까다롭겠지만 이런 등등등.

그래서 이런 구조.

그런데 부사절은 잘 챙겨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서술절이라고 하는 건 주어, 주어, 서술어 구성으로  
주어의 개수가 서술의 개수보다 더 많을 때 생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체 주어의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는 구조를 보셔야 되고.

인용절도 재료가 필요하죠.

뭐? 인용 부사격 조사인 -고, -라고를 찾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애네들이나 애 같은 경우에는

문법 재료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고 서술절은 구조 보고 판단하시고.

이어진 문장의 경우에는 결국 주어, 서술어.

그다음 주어, 서술어가 쉽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어져 있어요.

두 개가 선행절, 후행절로 이어져 있는데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에 뭐 들어갑니까?

연결어미 들어가죠.

그래서 이 연결어미가 어떤 연결어미나에 따라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있고

다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로 문제로 나오곤 있어요.

와/과로 이어진 문장에 대한 건 보기로 주면서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학교 교과서에 잘 언급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로 나오니깐 우리는 보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 연결어미가 있다는 걸 통해서

이어진 문장이라는 건 알겠는데 대등과 종속은 어떻게 볼 거냐,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가 독립적인 걸 우리는 대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연결어미를 외우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 (으)며와 같은 종류.

이건 그냥 나열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지만, -(으)나/나 이런 거.

그다음 선택하는 거, -든지, 거나.

이런 유형이에요.

이 여섯 개만큼은 꼭 암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예외적인 게 있습니다.

이 고 같은 경우에도 종속에 쓰일 때가 있어요.

그다음에 종속에서 쓰이는

-면, (으)면이라고 하는 이놈도 이럴 때 쓰일 때가 있긴 해요.

그런데 그런 건 좀 고난도 문제에서 가능한 거고

일단은 상식적으로 6개만 기억해주셔도 이것도 필요 없어.

이렇게 네 개만 알고 있어도 굉장히 유용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가)는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씩 나타난다.

보면 그렇죠.

서술어 하나, 주어 하나씩 나타나는 놈들입니다.

2번 가볼게요.

(나)의 A'은 홀문장과 홀문장이 의도의 관계에 의해

종속적으로 이어져있다, 라고 했습니다.

(나)의 중간에 끼있는 연결어미가 뭐니까?

나는 타려고, 새벽에 일어났다.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연결어미는 뭐니까?

타다의 연결어미 려고가 붙어있는 거지.

그런데 이 려고의 어미가 의도냐, 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려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종속이다.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애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일어났다.

이게 의도라는 거죠?

이걸 의도하여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번 설명 맞고.

3번에 보게 되면 B'인데 (나)의 B'이 구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홀문장을 안은 문장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4시 30분에 출발하는 첫차를 탔다예요.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출발하는 첫차를 탔다.

언제는 빼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첫차를 탔다, 라고 하는 문장 안에 뭐가 껴 있어요?

무엇이.

첫차가 언제 출발하다가 껴있는 거잖아.

그러면 애가 뭘 꾸며주고 있는 거다?

첫차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무슨 절?

관형절.

그러면 3번이 뭐라고 됐어야 돼?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이라고 나왔어야 되는 거죠.

정답 3번이고요.

4번, 당연히 (나)의 A'이

(가)의 A보다는 내용에 논리적 관계가 훨씬 더 명확하다.

왜냐하면 A는 그냥 홀문장 두 개를 연달아 갖다 뒀는데

중간에 접속어도 없거든요.

그에 반해서 (나)의 A' 같은 경우는 의도를 나타내는 려고 넣기 때문에

앞 문장과 뒤 문장의 관계가 명확해지는 것이고

또 5번처럼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을 안은 문장 관계로 형성해주게 됐을 때

훨씬 더 집약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문장 길이도 일단 짧아지거든요.

1번의 정답 3번이었고요.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안은 문장을 찾으려요.

나머지는 다 이어진 문장인가?

그렇진 않죠.

이럴 때 여러분이 각각 다 판단해보세요.

1번은 어떻습니까?

괄호, 어디다? 성격이 좋은에 괄호 쳐야 되죠.

어떻게 돼요?

민수는 학생이다, 라고 하는 주어, 서술어 사이에  
성격이 좋다, 라고 하는 주어, 서술어절이 안졌어요.  
그리고 이게 학생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맞나요?

그러면 애는 관형절이에요.

정답은 1번.

2번은 서술어 피었다 주어, 장미꽃이.

그리고 끝, 홀문장이죠?

나머지는 쓸모없어.

다음 3번, 읽었다 서술어.

다혜가 주어죠?

지난 시간에 했을 때 문장 성분의 서술어의 자릿수 이야기할 때는  
주어 말고도 목적어도 따져보고 부사어도, 아니야.

이번에는 짜임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절을 판단하는 것이고

이 절을 판단할 때는 중간 건 필요 없어요.

두 개만 보면 된다고요.

그래서 3번에 보게 되면 읽었다 서술어, 누가? 다혜가.

그 외에 주어나 서술어의 역할 하는 건 없습니다.

즉 2, 3번은 전부 다 홀문장이예요.

4번, 5번은 사선 그어야 됩니다.

그는 갔으나 사선.

5번, 바람이 세차게 불고 사선.

전부 다 이어진 문장인데

그 이어진 문장은 전부 다 보면 이거 썼죠, 일단 4번에.

그는 갔으나, 이거 썼습니다.

다음에 5번에 보면 바람이 세차게 불고, 이거 썼어요.

전부 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예요.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보기 2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보면

1번, ㄱ부터 ㄷ까지 모두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다.

ㄱ, 주어.

토끼는? 서술어는요?

앞발이 짧다죠.

이거 전체가 다 서술절로 안겨 있습니다.

다음 ㄴ, 이 산은 나무가 많다, 라고 했어요.

이 산은 주어, 나무가 많다 서술절이죠.

다음 ㄷ 갑니다.

우리 오빠는 대학생이 되었다.

이런 거 함정 파 놓는 거야.

뻘하잖아요.

ㄱ하고 ㄴ은 서술절 안은 문장 쫓다가

ㄷ은 서술절 안은 문장인 것처럼 해놨지만

사실은 보어가 요구되는 이러한 단어인 거죠.

그래서 주어 하나, 오빠는 되었다 서술어 하나.

대학생에는 보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5번이 잘못된 걸 알 수가 있죠.

주어 역할이 아닌 보어다.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보기 1을 바탕으로 했을 때 보기 2를 탐구.

보기 1은 이어진 문장인데 대등과 종속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뭐하러 우리는 보기 1을 봅니까?

설명, 이어진 문장이구나.

1번 갑니다.

ㄱ, ㄴ, ㄷ 모두 암벽등반은

힘들다와 암벽등반은 재미있다, 라는 홑문장이 이어져 있는 것이다.

뭐만 달라요?

보기 2에 보니까 ㄱ, ㄴ, ㄷ에 연결어미만 달라요.

ㄱ은 뭐야? 힘들고.

ㄴ은? 어서.

ㄷ은? 지만이죠.

그러면 제가 정리했죠?

고나 지만의 경우에는 대등입니다.

그런데 어서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종속 처리된단 말이야.

생각보다 좀 쉽지 않아요?

이거 간단하게 외우면 되니까.

그러면 2번은요.

앞절과 뒤절의 순서를 바꿔도 의미가 변화가 생기지 않는 이어진 문장이다.

ㄴ은 안 된다는 이야기야.

한번 바꿔 봐요.

ㄱ, 암벽등반은 재미있고 힘들다.

힘들고 재미있다.

어차피 같은 문장이야.

ㄷ도 마찬가지로야.

암벽등반은 재미있지만 힘들다.

힘들지만 재미있다, 라는 이야기예요.

같은 문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ㄴ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암벽등반은 재미있어서 힘들다.

힘들어서 재미있다.

이거는 차이가 나는 거죠, 의미상.

그래서 2번은 ㄴ이 잘못된 거다, 라고 보는 거죠.

그게 바로 4번과도 관련돼요.

4번의 ㄱ은 나열의 의미, ㄷ은 대조.

이건 지금 나열하는 거고 이걸 대조하는 거고 이걸 선택이에요.

세 종류예요.

이렇게 되는 거.

설명드릴게요.

이 고가 이런 건 문제 나옵니다.

이 고가 종속으로 처리될 때는 어떤 구성이냐면,

선후 관계일 때 주의하셔야 돼요.

이러면 아무리 고라고 해도 이건 종속 처리됩니다.

그래서 형은 세수하고 학교에 갔다.

이렇게 나왔어요.

형은 학교에 가고 세수를 했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가 나왔다 할지라도 선후 관계가 걸려들어가게 되면

이건 종속 처리하셔야 돼요.

그러나 나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그럴 때는 뭐다?

대등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차이 보시면 되겠고요.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에 해당하는 걸 따져보자,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문장은 보세요.

보기에 나와 있는 거 아무도 모르게.

어떻게 돼?

주어, 서술어.

이것도 못 찾을 때가 있더라고요.

재희는 봉사활동에 아무도 모르게 참여한다.

서술어 뭐다? 참여한다.

주어 뭐다? 재희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안겨있는 게 뭐다?

아무도 모르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모르다, 라고 하는 놈은 서술어였을 놈이라는 거죠.

지금은 부사어로 바뀌었지만.

그러면 누가 몰랐을까.

애죠.

애 주어예요.

아무가.

아무라고 하는 대명사에 원래 가가 와야 될 자리지만



보조사로 대체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어처럼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여도 어떻게 판단해야 돼?

누가 모르는 거지?

이게 모르는 거지 하면 애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는 이 절이 뭘 꾸며주고 있는?

참여하다, 라고 하는 용언을 꾸며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사절 안은 문장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1번은 밑줄 이미 쳐져 있어요, 친절하네요.

일은 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까지 밑줄 쳐져 있죠?

무슨 절? 명사절.

2번, 이가 시리도록.

뭐가 된다? 이가 시리다가 뒤에 나와 있는 차가웠다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부사절, 정답 2번이죠?

3번, 응기는 꼭 꿈을 이루겠다.

뒤에 걸 보셔야 돼요.

고 말했다, 인용됐죠?

다음 4번, 마음이 따뜻한, 하다에 나 붙어있죠?

사람을 꾸며줍니다.

우리가 어제 돌아온, 오다의 나.

관형절.

4번하고 5번은 전부 다 관형절.

그러니까 이 재료가 있으니까 찾기도 좀 수월하죠.

다음 문제 갑니다.

6번, 보기의 ㄱ부터 ㄴ을 활용하여

접문장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갑니다.

4개의 홀문장을 연결할 때 어떤 연결어미를 쓸 거냐에 대한 질문한 거죠?

1번, 바람이 불어서, 어서 밑줄.

단풍잎이 흔들린다.

그러면 종속 맞습니까?

종속 맞죠.

대등 아니죠.

대등의 종류가 아닙니다.

~해서 ~하다 원인과 결과의 개념이에요.

2번 갑니다.

차가운 바람이 분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에 바람이 차갑다가 바람이 불다 안에 들어갔어요.

이러면서 두 개의 주어가 겹치기 때문에

안긴 문장이 주어를 빼버렸다는 이야기죠.

3번 갑니다.

바람이 차갑고 단풍잎이 빨갳다.

연결어미 뭐로 갔어요? 고로 갔습니다.

이러면 대등이죠.

4번 가볼게요.

단풍잎이 바람이 불면 흔들린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 이야기해볼게요.

의미상은 사실 차이가 없어요.

이게 구조가 다르게 판단합니다.

뭐냐하면, 일단 서술어 뭐가 주어가 됩니까?

단풍잎이 주어가 돼요.

그런데 애는 불다가 서술어고 거기에 해당하는 주어가 바람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다? 이어진 문장.

그리고 연결어미가 면이 돼버리면 대등 아니죠, 종속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개념으로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성립됐어요.

그런데 위에 건 아니야.

주어, 서술어.

그리고 주어, 서술어가 앞뒤절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애는 어떤 구조예요, 지금 보니까?

바람이 불다가 안긴 거예요.

그래서 기능이 뭔데?

바람이 불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판단하죠?

부사절 안은 문장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나머지 재료는 전부 다 딱 정돈을 해놨다가

애만 등으로 해준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저 연결어미라고 하는 놈이 상황에 따라

전부 다 부사형 전성어미로 쓰일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판단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위치를 보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람이 불면이 꾸며주고 있는 놈이 뭐라는 거죠?

흔들리다, 라는 동사라는 거죠.

그러면 4번처럼 관형절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관형절이라면 명사.

체언을 꾸미고 있어야 됩니다.

부사절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부사절로 인정을 해야 되느냐, 라는

그런 학문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구조상은 문제가 없어요, 이게.

다음, 5번 가보도록 할게요.

흔들리는 단풍잎이 빨갳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관형절의 형태로 ㄷ에.

흔들리다가 흔들린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게 단풍잎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관형절이 성립된 거 맞죠.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조건을 보면 명사절과 관형절이 있는 겹문장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 문장 하나에 명사절도 있어야 되고 관형절도 있어야 된대요.

뭐로 찾을까요?

이거로 빨리 명사절 한번 찾아볼까요?

1번에 기나 음 보입니까?

안 보이네요.

2번 보입니까?

안 보이네요.

3번 보입니까?

보이네요.

피기.

4번에 보입니까?

오기.

5번에 피기.

일단은 명사절 있는 거 3, 4, 5번.

맞습니까?

이번에는 관형절 찾아볼게요.

이거 재료 찾아보세요.

3번에 있어요? 없어요.

4번에 있어요? 있죠.

활짝 핀 할 때 핀.

피다에 ㄴ 붙어있죠?

그다음에 5번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3번하고 5번은 명사절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어진 문장 구조.

나는 봄이 오고 꽃이 활짝 피기.

그다음 나는 봄이 와서 꽃이 활짝 피기.

이어진 문장을 형성해주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찾는 방식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선생님이 지금 뭐 가지고 판단했어요?

이런 문제 풀 때 재료 가지고 빨리 골라냈어요.

그거보다 빠르잖아.

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ㄱ과 ㄴ으로 보면

이어진 문장은 대조나 조건에 의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ㄱ은 연결어미가 지만이에요.

이겁니다.

대조 관계 형성된 거예요.

다음 그다음에 ㄴ은 철수가 오면 그들은 출발할 것이다.

면이에요.

그러면 애는 종속인데 그러면 이제 앞에 ~하면 ~한다, 라고 했으니까 조건을 지금 말해주는 거 맞죠, 의미상.

1번은 맞습니다.

2번, ㄱ과 ㄴ으로 볼 때 이어진 문장은 앞뒤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도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이건 대등일 때 가능한 거죠.

종속일 때는 안 돼요.

종속일 때는 선행절이 후행절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후행절을 앞에 주고 선행절을 뒤로 보낸다는 이야기는 의미 구조가 완전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ㄱ의 경우에는 동생은 야채는 싫어하지만, 과일은 좋아한다고 바뀌도 의미가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러나 ㄴ, 철수가 오면 그들은 출발할 것이다.

그들이 출발하면 철수가 올 것이라는 완전 다른 문장이 돼버립니다, 의미가.

그래서 2번이 ㄴ 때문에 틀렸다.

다음 3번, ㄱ과 ㄴ을 봤을 때 중복된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ㄱ에는 지금 주어를 두 번 중복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동생은을 뺐어요.

ㄴ도 가보겠습니다.

ㄴ은 영수가 책을 읽다가 안기면서

영수가, 라는 주어를 지금 뺐 상태입니다.

왜? 안은 문장에 지금 영수가 있기 때문에.

4번 가보도록 하죠.

ㄷ과 ㄴ로 봤을 때 안긴 문장은 안은 문장처럼 명사처럼 쓰이거나

명사를 꾸미는 등에, 라고 했어요.

명사처럼 쓰인다는 건 명사절.

명사를 꾸미는 건 관형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ㄷ이 명사절, ㄹ이 관형절이 형성됐던 것이고

5번의 경우에는 안은 문장과 안긴 문장의 주어가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했는데

ㄷ의 경우에는 안은 문장은 언니가, 안긴 문장은 그 아이가가 주어예요.

서로 달라요.

그런데 ㄹ의 경우에는 안긴 문장도 영수가가 주어고

안은 문장도는 영수가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가 형성이 된 거죠.

9번 문제, 2005년 수능이었는데 기억이 나요.

이때 학생들이 이 문제를 많이 틀렸어요.

보시면 일단 ㄱ, ㄴ, ㄷ 1번 답지

다 안긴 문장이라는 거 확인되지요?

ㄱ은 밑줄이 쳐져 있으니까 친절해.

ㄱ은 무슨 절? 관형절.

이마에 흐르는, 밑줄 친 부분 관형절이죠?

땀을 꾸며줍니다.

그다음 거 가볼까요?

ㄴ은 명사절이죠?

사람임, 이렇게 해서 끊어졌죠.

다음 ㄷ, 아는 것도 없어야.

그러면 애는 뭐예요? 잘난 척 하다가 꾸며주고 있는 부사절입니다.

어쨌든 1번은 맞는 이야기고요.

다음 2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이제 3번인데, 답장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었다예요.

여기서 지금 밑줄 친 부분은 이마에 흐르는이 밑줄이 쳐져 있죠?

답장은 땀을 씻었다, 라고 하는 이 홑문장 안에 안겨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주어가 있냐, 없다.

그래서 생략된 주어는 답장이다.

그러면 이제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야기했잖아요.

서술어에서 올라온다니까.

뭐가 흘러요?

담징이 흘러? 아니죠.

땀이.

그러니까 이게 안겨있는 거죠.

땀이 이마에 흐르다인데

그 땀이 이마에 흐르다가 땀을 꾸며주기 때문에 중복됐잖아.

그래서 애를 날려버리는 거죠.

우리 이런 절을 뭐라고 합니까?

관계 관형절.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관형절도 두 가지로 나뉘서

관계 관형절이라는 게 있고 동격 관형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관계 관형절은 이런 것처럼

지금 안기면서 문장 성분이 생략된 거를 이야기하고

동격 관형절은 안긴 문장의 문장 성분이 훼손된 게 없는 상태인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뒤에 문제 한 번 더 볼 겁니다.

그래서 9번에는 정답이 3번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10번, 이것도 우리가 좀 주의하셔야 돼요.

선생님도 이 이어진 문장, 안긴 문장.

이런 쪽은 문제 낼 때 가장 틀리게 많이 하고 싶으면 이거네요.

왜냐하면, 애는 이 기나 음이라고 하는 명사절인 건 아는데

바로 뒤에 어떠한 조사가 붙겠죠.

-기가, -기를, -기에, -기 띄고 전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명사절은 뒤에 나와 있는 조사 아니면

수식 하고 있는 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명사절이지만 주어로 쓰일 수 있고

명사절이지만 목적어로 쓰일 수 있고

명사절이지만 부사어로 쓰일 수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

명사절이지만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를 가지고 부사절하고 헷갈리게 하는 거죠.

이러면 아이들이 많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10번도 그거를 잘 풀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보기에 나와 있는

ㄱ부터 ㄹ까지는 밑줄 친 부분에 끝부분이 기로 끝났으니까

명사절인 거 확인할 수 있어요.

ㄱ부터 분석해보세요.

히, 기 뒤에 가가 나왔죠.

뭐죠? 주격조사.

뭐가 무엇과 같다.

즉 ㄱ은 주격 조사가 붙어서 주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ㄴ 가보죠.

비가 오기 뒤에 를 기다린다고요.

따라서 목적격 조사가 있고 목적어로 쓰였어요.

다음 ㄷ은 부모는 언제나 자식이 행복하기 밑줄.

그다음에 바란다고요.

목적격 조사가 원래 있으면 되는데 없어요, 현재.

즉 부모는 언제나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란다고요.

행복하기가 바란다고요 아니잖아요.

즉 3번 ㄷ은 목적격 조사는 없지만,

목적어로 쓰인 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넣어보면 되잖아요.

조사를 넣어보면 되거든요.

이제 4번 ㄹ인데, 겨울이 오기 띄고 전에예요.

그러면 겨울이 오기는 명사절은 맞아요,

어쨌든 기로 끝났으니까.

그런데 이놈이 띄어서 전을 꾸며준다면서

결국 관형어 기능인 거죠.



부사어가 아니라.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인 거 맞죠?

우리가 학교에 가기 뒤에 예가 붙어 있습니다.

부사격 조사죠?

그래서 그다음 이르다를 꾸며줍니다.

따라서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했고 부사어로 쓰였고.

다음 11번 문제는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밑줄 친 부분은

주어가 생략돼 있는 경우를 따져보자,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번 가봅시다.

1번부터 숙제를 하는을 원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숙제를 하다가 되겠죠.

문장 상태에서 보니까 누가요? 동생이죠.

형이 동생을 불렀다, 라는 문장 안에

동생이 숙제를 하다, 라는 문장이 끼어있는 겁니다.

이때 동생이가 생략됐어요.

주어가 빠진 겁니다.

2번도요.

동생은 형과 여행을 했다, 라는 문장 안에

대학생이 된 형이니까 형이 대학생이 되다였죠.

역시 형이라는 주어가 빠져있는 상태.

3번, 영수가 정희에게 말을 걸었다, 라는 문장 안에

버스에 탔다가 누가 버스에 탔죠?

정희가 버스에 탄 거죠.

역시 주어 생략.

4번 봅시다.

나는 사실을 몰랐다.

문장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정수가 은희와 결혼했다.

성분이 빠진 게 하나도 없어요.

즉 4번이 바로 뭐에 해당한다? 동격 관형절인 거죠.

차이 보이죠?

지금 1, 2, 3번 그리고 5번도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린 거니까

전부 다 지금 문장 성분이 빠져 있어요, 안기면서.

그런데 4번의 경우에는 문장 성분은 훼손된 거 없이

서술어 형태만 변해서 들어간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동격 관형절이라고 불러요.

다음요.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ㄴ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ㄱ, 이걸 좀 적어볼까요?

왜냐하면 이거 옳은 걸 찾는 거잖아요.

틀린 걸 찾는 게 아니야.

그러면 아예 판단을 먼저 해주고 나서

그다음에 답을 찾아 올라가도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은 내가 노래 부르기를 원한다.

마지막에 있는 서술어부터 찾는 겁니다.

원해요, 누가 원해요?

친구들이 원해요.

부르다, 라는 서술어였는데 원래 기로 바뀌면서 명사절이 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부르죠?

내가 부른 거예요.

이렇게 되는군요.

명사절 안긴 거죠?

다음 ㄴ 갑니다.

우리는 이 지역 토양이 벼농사에 적합함을 몰랐다.

서술어 몰랐어요.

누가 몰랐죠? 우리가 몰랐어요.

적합하대요.

역시 ㄱ을 취해주면서 명사절이 된 겁니다.

뭐가 적합하죠?

토양이 적합한 거죠, 주어.

이런 걸 구로 볼 수 있어요, 명사구.

이 지역, 토양, 다 묶어서 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토양이 벼농사에 적합하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 봅시다.

1번, ㄱ에는 부사어가 있다.

여기에 부사어 있습니까?

안 보이죠.

그러면 틀렸어요, 벌써.

2번, ㄱ에는 명사절이 안겨있지만.

명사절 안겨있죠?

ㄴ에는 부사절이 안겨있다.

ㄴ도 명사절이었어요.

틀렸죠.

3번, ㄱ에는 서술절이 안겨있지만.

서술절 없어요.

ㄴ에는 관형절, 틀렸어요.

금방금방 보이죠?

4번 갑니다.

ㄱ에는 안긴 문장 속에 관형어가 있지만.

안긴 문장 속에 관형어가 있느냐.

이거 지금 노래를이라고 하는 목적어죠.

노래를 부르다.

관형어 없습니다.

그러면 틀렸죠.

5번 갑니다.

ㄱ에는 안긴 문장 안에 목적어가 있지만.

를 빠져있는 걸 챙겨주라고요.

그러면 목적어인 걸 알 수 있잖아요.

다음에 ㄴ에 문장 성분, 안긴 문장 안에는 목적어는 없다.

이 지역 관형어예요, 토양 꾸며주는 거.

벼농사 부사어죠.

적합하다를 꾸며주고 있는 거.

목적어 안 보이는 거 맞죠?

그래서 5번이 답이었던 겁니다.

안겨진 문장 안에 조사가 생략돼 있는

문장 성분을 찾아내는 연습이 되었어야 되네요.

13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수월하게 가도록 할게요.

정답은 5번이 답이었던 건데 ㄴ에 안긴 문장 부분은 눈이 크다는

이게 관형절로 안겨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목적어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니까 정답은 5번이 답이었던 거고요.

ㄴ 문장을 정리하면 그는 주어고 알고 있다가 서술어고요.

지훈이가 성실하고 눈이 크다가, 이게 이어진 문장인데

그게 ~하다는으로 관형절로 또 안겨진 거예요.

그런 구성입니다.

14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인데 이 문제가 바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학교 문법에서는 잘 안 가르쳐주지만

실제로는 문제에 창출이 되곤 한다는 이 이야기에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이 와나 과가 과연 이어진 문장을 만들어주느냐 아니냐는

서술어에 의한 판단입니다.

즉 만약에 이어진 문장이라면 두 개로 찢어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1번 보세요.

나는 시와 소설을 좋아한다.

이 문장 두 개로 찢으면 어떻게 되죠?

나는 시를 좋아한다, 나는 소설을 좋아한다.

너무 쉬워요.

2번도 보세요.

그녀는 집과 도서관에서 공부했다.

그녀는 집에서 공부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공부했다.

이 방식이죠.

그런데 5번이 서술어가 뭐냐, 사귀다, 다투다, 만나다.

이런 단어들을 잡아본다고 보세요.

그 사람과 나는 오래전부터 서로 사귀어왔다.

찢어요?

그 사람은 서로 사귀어왔다.

그 사람은 사귀어왔다.

나는 오래전부터 사귀었다.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찢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즉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1, 2, 3, 4번은 와나 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번의 경우에는 서술어에 따라서는

이게 복수 주어와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나는 찢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이 5번은 홀문장 처리됩니다.

그래서 1, 2, 3, 4는 겹문장, 5번은 홀문장.

서술어에 따라 판단할 수 있어요.

잠시 쉬었다 선생님이 16번부터 써야 될 게 좀 많아서 적어놓고 진행합니다.

15번 문제는 어떤 방식이에요?

지금 보면,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 형성되어있는데

보니까 밑줄 친 부분이 원문장에서

주어로 쓰였을까 목적어로 쓰였을까 부사어로 쓰였을까를

판단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1번하고 2번의 경우에는 전부 다 주어로 쓰였어야 되는 건데

문장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어제 결혼했다가 문장 안에 들어간 거고.

그들은 그러면 주어였었겠죠?

다음, 친구가 누나를 많이 닮았다.

주어졌겠네요.

2번 갑니다.

탁자가 나무로 되었다가 안긴 거죠?

그러면 이것도 주어였을 것이고 생각이 시대에 뒤떨어지다가 안긴 겁니다.

그러면 역시 생각도 주어로 쓰였겠네요.

이제 3번이 문제가 될 텐데,

ㄴ이면 모두 목적어로 쓰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원이라고 하는 주어는 안기기 전에 원문장 뭐였을까요?

두 사람이 어제 공원에서 헤어지다였겠죠.

즉 목적어.

공원을이 나왔을 리가 없어.

즉 공원에서 헤어지다.

부사어가 이 안에 안겨있는 거기 때문에

3번은 틀렸네요.

밑에 문장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는 어제 부모님이 일을 시켰다.

이렇게 나왔겠죠?

일을 목적어로 쓰였던 거 맞습니다.

4번, 친구가 나에게 옷을 주다였겠죠.

그 옷은 목적어로 쓰였을 높이었고

그다음에 누나가 장갑을 털실로 짜다.

역시 목적어였을 높입니다.

5번은 전부 다 부사어로 쓰였어야 되는데

첫 번째 문장은 뭐로 갔을까요?

주말에가 됐겠죠.

즉 아이들이 주말에 운동장에서 공을 차다, 부사어.

다음, 그는 경기장에서였겠네요.

관중이 경기장에 쓰레기를 남기다가 되겠죠.

즉 5번에 주말과 경기장은 부사어였을 높이었습시다.

이제 16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문장을 여러분이 여기 잠시 멈추고 16번, 17번 그리고 18번에

예문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구조 한번 파악해보겠어요?

안긴 문장, 안은 문장 할 때는 괄호.

그다음에 이어진 문장 사선 하면서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일일이 다 이야기해볼 테니까

맞는지 아닌지 한번 비교해보세요.

먼저 ㄱ부터 갈 거예요.

ㄱ에 보면 바깥 서술어 뭐니까?

밝혀졌어요.

뭐가 밝혀졌다는 거죠?

이게 밝혀졌어요.

이 전체가 다 밝혀졌어요.

이게 지금 주어로 쓰이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범인이다, 라는 서술어였죠.

범인이다, 라는 서술어고 그가 범인이다, 라는 서술어였던 거죠.

즉 애가 뭐가 되죠?

범인임이라고 하는 명사절 간 거죠.

그래서 명사절이 주어로 쓰인 겁니다.

주격 조사랑 붙어서.

정리됐나요?

ㄴ 가보도록 할게요.

서술어 뭐예요? 드러났어요.

뭐가 드러났죠?

사실이 드러났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언니가 빵을 먹다고 하는 것이 안겨있는 거죠?

언니가 먹다.

그게 뭐로 안겨 있습니까?

먹은 사실, 관형절로 안겨있는 구조예요.

다음 ㄷ 가겠습니다.

서술어 뭐가 있죠?

먹었다.

누가 먹었어요?

오빠가 먹었어요.

전체 주어입니다.

안긴 문장 보게 되면 동생이 가게에서 빵을 사다였겠죠?

그런데 지금은 관계 관형절로 빵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동생이 주어, 사다 서술어.

애는 관형절이죠?

역시나 ㄴ 취하고요, 은 취하고요.

이건 ㄹ 취하고요.

그다음 ㄹ 가겠습니다.

서술어 뭐야? 기다렸어요.

누가 기다렸어요? 나는 기다렸어요.

그다음에 뭐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네.

가기, 이런 재료를 빨리 찾아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나는 집에 가기만을 기다렸다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오면 내가 주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중복 주어로 처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생략돼 있는 거죠.

안긴 문장의 주어가 생략된 거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집에 가다, 나는 무엇을 기다리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집에 가기는 명사절이고

이 명사절은 문장 내에서 뭐로 쓰였다?

목적어로 쓰였다.

ㄱ하고 차이 나죠?

ㄱ은 주격 조사랑 붙었기 때문에 주어로 쓰인 거고

애는 목적격 조사랑 붙었으니까 목적어로 쓰이는 겁니다.



ㄱ 가볼게요.

서술어 뭐예요? 바쁘대요.

누가 바쁘니까? 누나가 바빠요.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집에 가기, 라고 하는 명사절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와 붙었어요?

부사격 조사랑 붙었죠, 부사어로 쓰인 겁니다.

그러면서 바쁘다.

여러분, 차이 잘 보셔야 돼요.

애는 명사절이지 부사절이 아니에요.

명사절이지만 부사격 조사랑 붙어서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절 자체는 명사절입니다.

정답은 4번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놈과 이놈은 안긴 문장의 주어가

각각 안은 문장의 주어와 다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ㄱ의 경우에는 누가 집에 가는 거죠?

누나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안긴 문장이나 안은 문장의 주어가 일치한다고 봐야 됩니다.

ㄷ의 경우는 다른 거 맞아요.

왜냐하면 바깥 서술어의 주어는

오빠가 안에 서술어의 주어는 동생이니까 서로 다른 거 맞습니다.

17번 가보도록 할게요.

ㄱ 문장가보도록 할게요.

서술어 뭐니까? 기다려요.

누가 기다려요?

그녀가 기다려요.

뭐를 기다리겠어요?

그녀가 뭐를 기다려요?

이 전체가 다 안겨있네요.

뭐로 안겨 있습니까?

기 형태로 안겨있는 거죠.

일단 명사절 찾았습니까?

명사절 있습니다.

이 명사절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목적적 조사 붙어있으니까.

그런데 이 안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애가 지금 서술어고 그다음 이놈이 지금 주어인데  
봄이 따뜻하다, 라고 하는 서술어였을 놈이 또 안겨있는 거죠.

관형절로.

그러니까 애는 이걸 판단하셔야 돼요.

전체는 명사절 있고 명사절 안에 관형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ㄴ 문장 가볼게요.

서술어 착해요.

누가 착해요?

이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친구가 착하네요,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애도 주어죠.

이 이는 주격 조사 아니면 보격 조사일 텐데 보어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애가 주어가 돼요.

그러면 일단 이거 빼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주어, 주어, 서술어 무슨 절? 서술절.

서술절이 일단 있어요.

그리고 내가 친구를 만나다, 라고 하는 이놈이 또 안겨있는 거죠.

그러면 애는 무슨 절로 안겨있는 거죠?

관형절로 안겨있는 거죠.

그러니까 ㄴ의 문장은 서술절 있고 관형절이 있어요.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전체 주어는 이놈이에요.

결국 친구는 어떠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하다 자리 서술어 자리를

주어,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는 절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서술절.

그다음에 내가 친구를 만나다가 안기면서 관형절 처리되고 있습니다.

ㄷ 가보도록 하죠.

잔대요.

누가 자요? 동생이 자는 거죠?

전체 주어, 전체 서술어입니다.

그런데 안긴 건 되게 편안해요.

엄마가 모른다.

그러면 애가 또 다른 서술어였고 주어였을 놈인데

이게 뭘 꾸며주고 있습니까?

잔다를 꾸며주고 있죠.

즉 부사절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생이 피곤해하다, 라고 하는 건데 피곤해하던을 취하고 있죠?

관형절입니다.

그러면서 동생 꾸며주고 있는 거죠?

관계 관형절.

중복 주어가 있으니까 빼버리네요.

그래서 애는 서술어였을 놈이었고

ㄷ 가보겠습니다.

ㄷ은 비싸대요, 서술어.

뭐가 비싸요?

배추가 비싼 거야.

그런데 값이가 또 주어 나와 있어요.

이러면 또 어떻게 정리된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앞에 거 버린다 생각해 보세요.

버린다 치고 배추는 값이 비싸다.

배추가 값이 비싸다.

진짜 주어고요, 전체 주어.

전체 주어고 그다음에 서술절 안은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이 안에 또 뭐가 있어요?

그가 시장에서 배추를 샀다.

이거죠?

배추를은 수식 받는 거랑 일치하니까 또 빼버립니다.

그래서 역시 그가 주어, 사다가 서술어였을 놈인데

관형절로 안겨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7번의 경우에는 정답이 2번이 답이었던 거죠?

ㄷ과 ㄹ에서 서술에 기능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즉 서술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ㄹ은 있지만, ㄷ에는 서술절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18번 가보도록 할게요.

전체 서술어 뭐죠?

것이다.

서술격 조사랑 붙어있으니까 애가 ~란 ~한 것이다.

뭐가요?

이게 것이다죠.

애가 주어예요.

그런데 내가 빌린이 안겨있네요.

내가 빌리다, 자전거를 빌리다인데 꾸며주고 있는 거죠?

관형절.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절이 아니죠?

그래서 애는 그냥 전체.

자전거는 내 친구의 것이다, 라는 홀문장에서

내가 자전거를 빌리다가 수식해주는 관형절 들어가 있고요.

다음 ㄴ 가보겠습니다.

서술어 도착했어요.

누가 도착했죠?

우리가 도착했어요.

또 보이는 게 있나요?

단서 여기 보이죠?

시작되다, 뭐가 시작되다?

공연이 시작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애가 뭘 꾸며주고 있습니까?

전을 꾸며주는 거죠.

따라서 관형절 아니라고요.

잘 보세요.

기로 끝났으면 명사절이에요.

명사절인데 명사절이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관형절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관형절은 항상 단서가 뭐가 필요해?

관형사형 전성어미인 ㄴ이나 는, 을, 던.

이게 필요해.

애는 공연이 시작되다가 공연이 시작되기에 명사 형태로 바뀐 거예요.

명사절.

단 문장 내에서는 전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관형절 아니고 명사절 맞고.

그러나 문장 성분은 관형어.

정리 잘하세요.

다음 ㄷ 가보겠습니다.

서술어 뭐예요?

길다.

뭐가 길어요?

손가락이 길어요.

그런데 영수가 또.

그러면 이것도 또 주어 들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애가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이 누구보다.

이 보다가 뭐예요, 여러분? 비교부사격 조사.

그냥 부사어예요.

우리는 주어, 서술어만 찾으려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서술절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주어인데 또 여기 앞에 보니까 보가 있어요.

단서, 이거 보이죠.

피아노를 잘 치다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서술어는 잘 치다.

주어는 지금 생략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복 주어니까, 영수는과.

그러면 애도 역시 뭘 꾸며준다?

영수를 꾸며준다.

관형절, 명사절 차이 뭔지 알겠어요?

둘 다 체언을 꾸미는 건 똑같지만 형태가 다르다고요.

애는 기, 애는 는.

이 차이예요.

르 갑니다.

서술어 뭐예요?

드러났대요.

뭐가 드러났어요?

이게 드러났어.

그런데 이게 여기서부터 가고 있죠?

이것이 드러났다니까 이게 전체 주어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 주어 안에 서술어가 보이고요.

명사절로 끝났죠?

그다음에 파수꾼이 속였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명사절이 일단 안겨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또 뭐가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애가 서술어고 누가 살아요?

사람들이 살죠.

중복 주어이기 때문에 생략.

그러면 전체 문장은 무엇이 드러났다고 그다음에 그 안에

파수꾼이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을 속였다, 라는 문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음으로 바뀌면서 명사절로 갔고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장 안에도 또 안긴 게 사람들이 마을에 살다죠.

그게 관형절로 사람들을 꾸미면서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연습을 자꾸 하시면 이런 문제들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18번 문제의 경우에도 정답은 1번인데

ㄱ, ㄷ 모두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ㄷ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서술절이 있지만

ㄱ에는 서술절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내면 되죠.

나머지도 한번 해보실래요?

2번에 ㄱ, ㄷ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 문장.

ㄱ에 체언 수식하는 안긴 문장.

자전거 꾸미고 있죠?

ㄷ에는 체언 수식하고 있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 안긴 문장.

다음 3번, ㄴ에 안긴 문장.

ㄴ에 안긴 문장에는 부사어가 안 보인다.

공연이 시작되다.

부사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ㄷ에 안긴 문장에는 부사어가 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부사어, 잘 치다.

누구보다, 이거 부사어잖아요.

길다.

이런 거 전부 다 부사어가 되는 거죠.

다음에 4번, ㄴ에는 관형어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

잘 보셔야 돼요.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라고 했어요.

관형절이라고 안 했어요.

그러면 애는 명사절이지만 기능은 관형어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다음, ㄹ에는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 역할을 하는.

조사와 결합한 상태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절이 있다.

5번, ㄷ과 ㄹ에는 모두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다.

여기도 지금 주어 생략돼 있고

여기도 지금 주어가 생략돼 있다는 거잖아요.

마지막 문장 19번이에요.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시 ㄱ부터 ㄴ까지를 빨리.

이건 간단한 형태니까 괄호를 쳐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ㄱ은 자식이 건강하기 괄호, 명사절이죠?

ㄴ은 연락도 없이 괄호, 부사절이죠?

ㄷ은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 괄호, 명사절이죠.

그러나 이 생략된 문장 성분을 따져보면.

아니죠, 여기는 생략된 게 없죠.

그냥 자신의 판단이 옳다, 이렇게 나오니까

옳다가 서술어고 판단이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생략된 문장 성분이 주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온전하게 있어요.

다음 4번에 보게 되면 괄호 내가 늘 쉬던데 괄호를 치면 되겠죠?

그러면 애가 관형절이죠?

그리고 생략된 문장 성분은 공원에서.

부사어가 생략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에 보게 되면 아주 어려운, 이 부분입니다.



그 사람은 과제를 금방 끝냈다, 라는 문장 안에 아주 어렵다.

과제가 아주 어려운 거죠.

그래서 관형절은 맞는데 생략된 문장 성분은 주어.

과제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19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연습 잘 해오시고

선생님이랑 다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